

Letterly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15% 할인
3월 31일 마감



Vol. 21 No. 1000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28 2025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kpalk@ownnewengland.com
ClarkPal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편집자 노트>

1000호를 발간하며 보스톤코리아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적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로 알려진 피터 톨의 책 <제로투원>에서 한 문구가 뇌리를 사로잡는다. “중요한 진실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대부분이 동의할 수 없는 진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

스탠포드 철학과와 법학과를 나온 변호사였던 그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모든 사람들은 A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진실은 A의 반대다.’ 라고 쉽게 풀어줬다. 질문을 꿰뚫을 수 있는 반 직관력과 용기가 있어야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는 모두가 인정하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세계화가 한창이던 2005년 3월, 뉴튼센터 ‘보스

<전체 기사 읽기>

톤 정 유학원’의 사무실 한켠에서 보스톤코리아는 출발했다. 처음엔 ‘보스톤코리아’ 이란 주간 신문이었다.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신문의 방향은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이었다. 글로벌 시대에 매사추세츠의 작은 타운에서 시작한 소수 중의 소수인 한인사회의 신문, 누가 봐도 글로벌 시대의 역행이었다. 무료 재정 컨설턴트를 제공해주던 유메스 보스톤의 교수도 보스톤코리아의 사업계획에 고개를 저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이란 철없는 생각으로 출발한 ‘스타트업’ 보스톤코리아를 향한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물론 보스톤의 3월은 여전히 춥기도 하다.

이민자들은 뭔가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로 지난해 아카데미 상 후보에 올랐던 셀린 송 감독이 필자와 >>4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가 매년 50호씩 20년간 1천호를 발간했다. 사진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하버드 예비뉴 161번 지빌딩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미국경 책임자, 보스톤 직접 방문해 단속 지휘... ICE 수백 명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단속국(ICE)이 최근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불법 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이민자 단속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먼 미민단속국장 대행은 지난 주 보스톤을 직접 방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전체 기사 읽기>

작전을 지휘했다. 호먼은 24일 엑스(X)를 통해,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이번 작전에서 사실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외국인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국제 도주범, 마약 밀매범, 아동 성범죄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범죄자들이 체포됐다” 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속 >>8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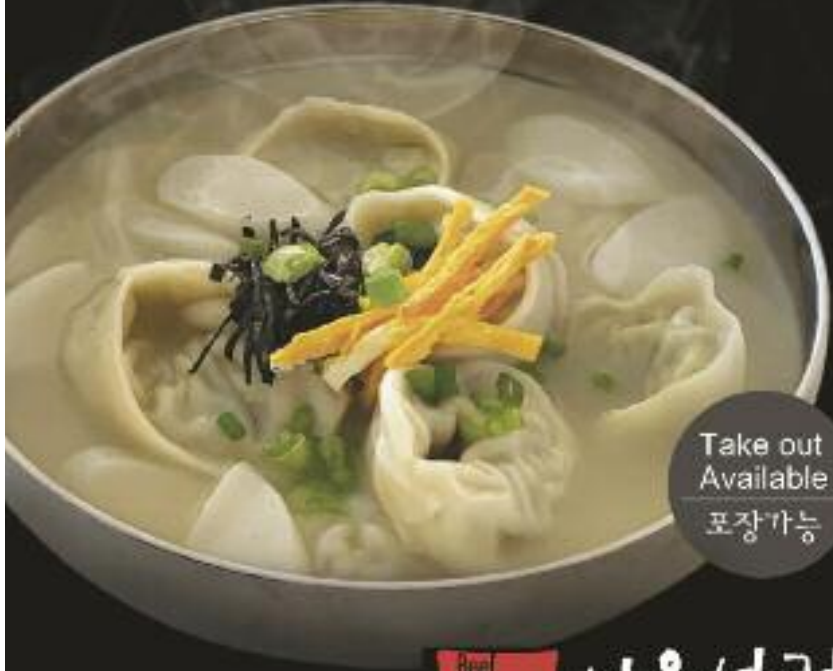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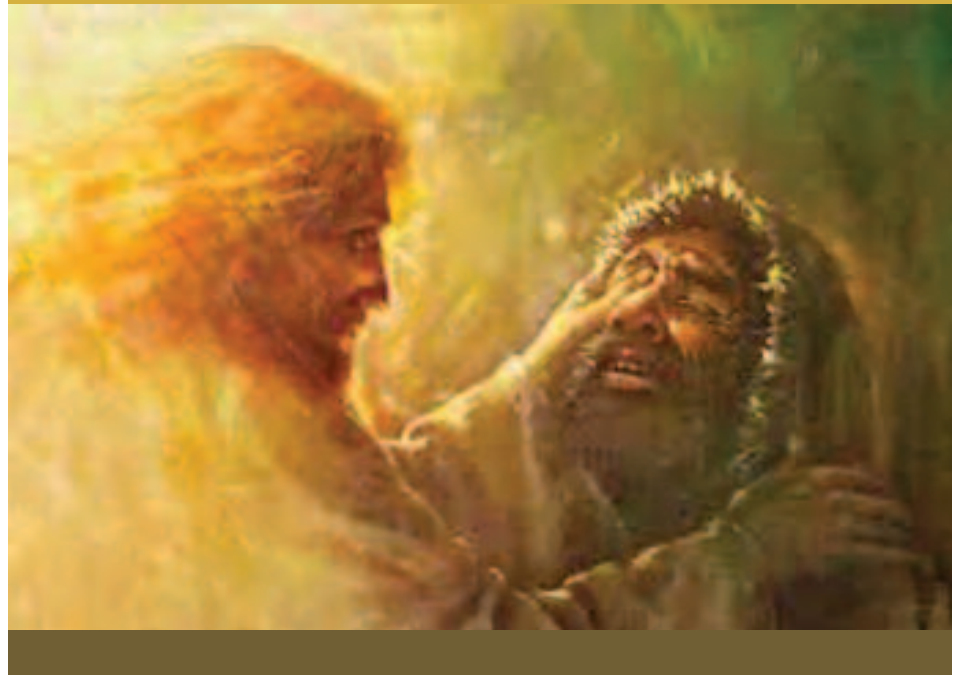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Pine D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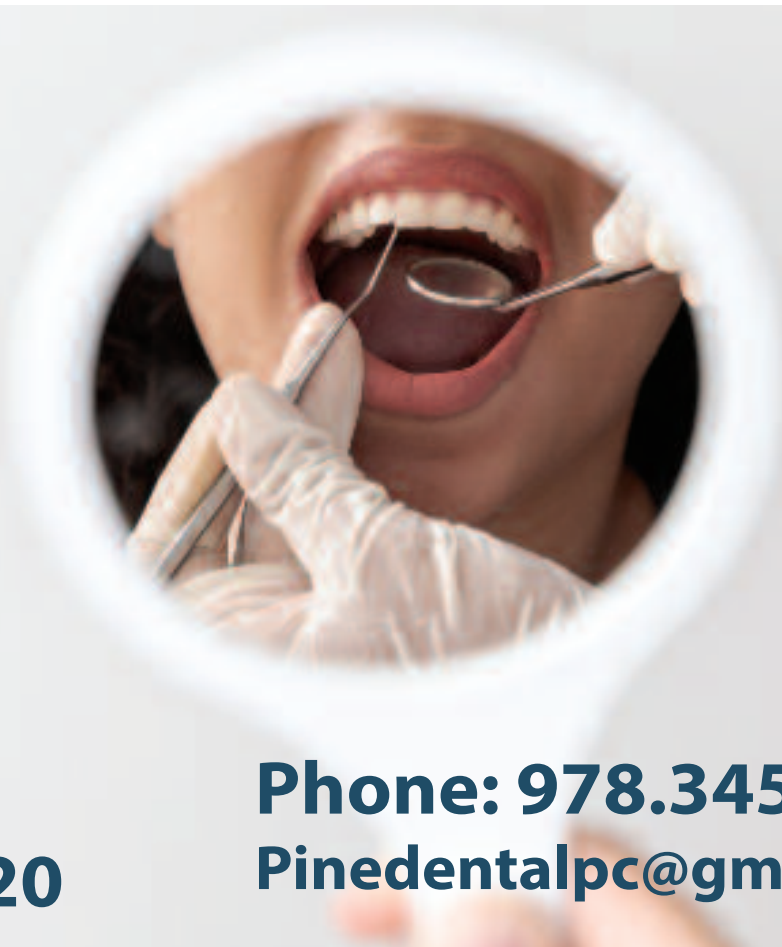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및 1000호 발간 축하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김재휘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

보스톤 코리아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매년 50호를 발간하여 오늘로 1,000호가 발간됩니다.

지난 20년간 동포사회에 빠른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온 보스톤 코리아는 우리 모두 매주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지로서 동포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립매김 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스톤에 처음 도착하는 분들에게는 정착의 동반자로서도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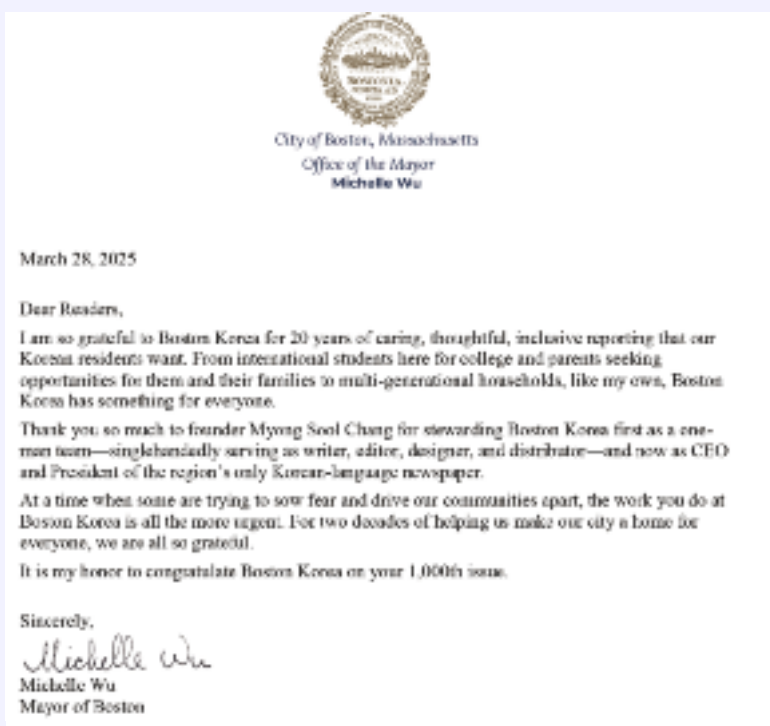
한인 이민사회의 동포 언론이라는 특성에 맞게 보스톤 코리아는 항상 친근하고 또 친절한 언론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누고 안타까운 소식에는 다함께 슬퍼했습니다. 아울러, 동포사회가 고민해야할 일이 있을때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인 보스톤 코리아의 지난 20년간의 노력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문 보스톤 코리아는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디지털 언론으로서 온라인 정보를 전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이 신문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동포사회 역사의 기록자로서 계속 역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20년 세월의 굴곡과 부침에도 보스톤 코리아가 건강하고 튼튼한 신문으로서 역할해 온 것은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보스톤 코리아가 동포사회와 함께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스톤대한민국 총영사 김재휘

미셸 우 (보스톤 시장)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1000호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여년간 보스톤코리아가 있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고 한인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는 달랐습니다. 늘 성숙한 자세로 정직하게 써왔습니다.

특히, 보스톤코리아는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외면하고 주목받지 못한 것을 찾아다니며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0호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언론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역사는 신문에 기록되고

때가 이르렀던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타올 한장이 내눈에 띄었다. 타올은 서랍속에 반듯이 개어져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퍼볼적에 '2015년 보스톤코리아 10주년 기념' 이라 적혀 있었다. 이따금 이용하던 타올인데, 다른 타올들 틈에 끼어있어 쉽게 눈에 띄이지는 않았던 거다. 기념품으로 받게 2015년 봄이다. 그게 10년 전이다. 한국소설가 이병주의 말이 떠올랐다. '햇빛(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즈음 신문은 한인 지역사회역사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시 10여년이 흘렀다. 이제 보스톤코리아의 지령(紙齡)이 1000호가 된다. 무려 20년 역사인데, 신문이 창간되고 펴낸 세월을 말한다. 이병주의 변(辯)은 이어진다.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

신문이 이어온 20년 세월은 한인사회의 역사를 넘어 이젠 신화일 게다. 출렁이는 산맥이 되었고,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골짜기까지 훑어낼 걸 믿고 바란다. 온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인데, 더욱 정진하며 한인사회에 봉사하리라.

발간 20년과 지령1000호를 축하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벤헌전4:10) 김화옥 (10년차 독자겸 필자)

신영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보스톤코리아!!'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창간 20주년을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한인들과 함께 들숨과 날숨으로 달려온 '보스톤코리아!!'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000호 발간에 즈음하여, 보스톤코리아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1면에 이어서

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한인들 개개인들의 삶에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상실이 감혀 있기도 하고 커다란 성취가 가려져 있기도 하다. 조금만 털어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온다. 보스톤 한인사회는 노다지 금광이었다. 그 이야기들을 캐어서 담으면 됐다.

한인들의 이야기 옆에는 이민생활을 하는 한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곁들였다. 지역사회의 한인들을 연결하고 서로에게 부가가치를 더해가는 그런 선순환을 염두에 그렸다. 네트워크 형성으로 한인 사회의 경제가 움직이게 하는 축이 되는 구조다. 따뜻하고 좋은 신문이 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었다. 그렇게 한 주에 한 호씩 차곡차곡 쌓았다. 사실이 쌓이기도 했지만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보스톤 코리아의 창간호의 날짜는 2005년이 아닌 200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잘못 인쇄된 달러 지폐는 10만 달러를 호가한다.) 뿐만 아니다. 잘못된 캡션과 오타자도 잡아도 끝이 없이 나오는 별레들처럼 잊을만 하면 반복됐다. 돌아보면 오보도, 또한 편향성도 있었다. 그러나 편집자로서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자 노력했고,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세월도 쉼 없이 쌓였다.

오랜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아 뭐가 우리들 삶에 유용함을 주는 것들은 역사가 된다.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에도 보스톤코리아는 여전히 한인들 곁에 있다. 고맙게도 독자들이 보스톤코리아를 동반자로 인정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측면에서 보스톤 한인사회의 역사이자 매사추세츠의 역



사로 남을 수 있었다. 보스톤코리아는 더 따뜻하고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자 한다.

20년째 우리는 여전히 스타트업이다. 매주 다시 시작하고, 매일 다시 시작한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한다. 안타깝지만 보스톤코리아 내부의 노력은 통제해도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언론의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선부른 삼페인은 꺼낼 수조차 없다.

우리의 미래는 솔직히 모른다. 단지 우리가 그리는 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다. 보스톤코리아는 종이 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 즉 다른 플랫폼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20년 후에도 여전히 한인들 곁에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지라도 진실이 되도록 매일 정진할 것이다. 매일 함께 해준 독자들, 옆에서 도운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40주년 <편집자 노트>에서 다시 만나길 기도한다.

editor@bostonkorea.com

힐리 주지사, 우 시장 등 각계 축하 메시지 답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코리아의 1천호 발간을 기념해 모라 힐리 주지사, 미셸 우 보스톤 시장, 김재휘 총영사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매사추세츠주를 대신해 나와 드리스콜 부주지사는 진정으로 보스톤 코리아 신문의 헌신에 축하를 전한다” 고 전했다.

주지사는 “장명술 대표가 지난 20년 동안 한인사회가 매사추세츠 주의 최신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인 사회에 내의 연대를 구축하도록 20여 년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왔다” 며 “앞으로도 계속 언론으로서 성공적 역할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20년간 한인들에게 사려깊고 포용성 있는 언론을 제공해 온 것에 축하한다. 유학생, 그리고 이민가정에게 보스톤코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 말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심고 커뮤니티를 가르치는 시대에 보스톤코리아의 역할을 더욱 중대하며, 20년간 보스톤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도록 해준 것에 감사한다” 고 전했다.

김재휘 총영사도 “지난 20년간 동

포사회에 빠른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온 보스톤 코리아는 우리 모두 매주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지로서 동포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립해 갔다. 동시에 보스톤에 처음 도착하는 분들에게는 정착의 동반자로서도 큰 역할을 한바 있다.” 고 격려했다.

김은한 본지 칼럼니스트는 “보스톤 코리아는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외면하고 주목받지 못한 것을 찾아다니며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1000호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다.” 고 칭찬했다.

김화옥 칼럼니스트는 “신문이 이어온 20년 세월은 한인사회의 역사를 넘어 이젠 신화일 게다. 출렁이는 산맥이 되었고,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골짜기까지 훑어낼 걸 믿고 바란다. 온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인데, 더욱 정진하며 한인사회에 봉사하시라.” 고 격려했다.

신영 칼럼니스트도 “한인들과 함께 들숨과 날숨으로 달려온 '보스톤코리아!!'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hsb@bostonkorea.com

JUNG KWAN JANG

세계 No.1 정관장 홍삼정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6년 숙성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U Mass-Boston 한인학생회(KOSA) 한문수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보스톤캠퍼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이하 유매스보스톤) 한인학생회(KOSA, 회장 하중수)는 한문수 교수를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보스톤캠퍼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이하 UMass Boston) 한인학생회(KOSA, 회장 하중수)가 보스톤 평통 회장인 한문수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선 한문수 교수는 라셀대학교 및 노스쇼어커뮤니티칼리지(NSCC)에서 경제학 및 재무(finance)를 강의하고 있다. 한 교수는 “유매스보스톤의 열정적인 학생들과 의미 있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차세대 지도자인 한인 유학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번 강연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매스보스톤의 유니버시티홀 4층(Y04-4160)에서 ‘

〈전체 기사 읽기〉

남북한의 경제 관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 교수는 영어로 강연할 예정이다. 남북한 간 경제 비교, 미래 협력 가능성, 통일을 위한 경제 전략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Q&A) 세션도 마련돼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SA 하중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보스톤 총영사관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차세대 공공외교 포럼에서 한문수 교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한 인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한 교수님께서 남북 경제 비교 및 전망에 관한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OSA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교수 및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해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주최의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유학생



대표로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 피자와 음료 제공되며, 한반도 문제 및 경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생 및 지역 주민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정보
날짜: 2025년 4월 4일 (금)
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UMass Boston University Hall 4층, Y04-4160
문의: umb.kosa@gmail.com
웹사이트: www.umbkosa.org
인스타그램: @umb_kosa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4월 5일 제7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오는 4월 5일(토) 뉴햄프셔에 위치한 잭슨 마운틴(Mt. Jackson 4,052ft.)과 웹스터 마운틴(Mt. Webster 3,910ft.)으로 제7차 정기 겨울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서 A조는 왕복 6.2마일 잭슨마운틴과 웹스터 루프를 등반하며 B조는 왕복 5.2마일의 잭슨마운틴을 등반한다. 웹스터 루프 등반은 이날 날씨 상태에 따라 산행지에서 결정한다. 산행 시간은 약 5-6시간이며, 난이도는 5단계 척도 중 4로 높은 편이다.

참가자는 크램폰(아이젠), 헤드랜턴, 스패츠, 배낭, 등산스틱, 방풍재킷, 우의,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면티셔츠와 청바지 착용은 금지되며, 기능성 드라이핏 의류를 권장한다.

보스톤 산악회는 “겨울 산행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

〈전체 기사 읽기〉

특히 아이젠을 꼭 지참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헤드랜턴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가능하면 고글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RT93 Exit 2) 보스톤 익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참가비(차비)는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4월 3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시 희망 조, 집결 장소, 차량 동승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공식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날 카페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북미최대 안마의사 전문업체 **OTA WORLD**가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Osaki+ Promo Video ▶

캐롤린 본점 | 1001 W Crosby Rd, Carrollton, TX 75006

“안정적인 소자본 창업 (5만에서 10만) 간편한 매장 운영”

※ 16개 주 34개 스토어 오픈 성업중

점주는 판매만 하시면 됩니다
※ 배송부터 워런티까지 본사가 책임집니다

문의 | John Lee
 214-504-6745
 john.lee@osakifitan.com

문의 | Enna Lee
 214-613-1630
 enna.l@osakifitan.com

www.TITANCHAIR.com **OTA World** Osaki Titan AnaMedic

www.OSAKIUSA.com



하버드 교수진 600여 명, 트럼프 정부 압력에 저항 요구

컬럼비아 대학의 트럼프 요구 수용 후 하버드 교수들 집단 반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 교수진 600여 명이 대학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학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명령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배포된 이 서한은 26일 저녁까지 빠르게 지지를 얻으며 하버드 내 9개 모든 학부 교수진으로부터 600개가 넘는 서명을 받았다. 서한에서는 "미국 대학들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은 민주사회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컬럼비아 대학이 4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캠퍼스 내 경찰 권한 강화 및 중동 연구 프로그램의 행정적 조사를 수용한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한에 서명한 하버드 교수진들은 하버드가 컬럼비아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컬럼비아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을 수용해 36명의 특수 경찰을 고용해 캠퍼스 내의 시위를 진압하고 중동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에 동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대학을

〈전체 기사 읽기〉

상대로 타협을 위해 위협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겼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문학, 경제학에서부터 컴퓨터공학, 의학 등 다양한 전공 교수들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문과학대학에서 가장 많은 260여 명이 서명했고, 의과대학이 110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하버드 법대 교수 니콜라스 보위는 인터뷰를 통해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은 민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육의 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앨런 가버 총장은 비공개적으로 타 대학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진과 동문 등 많은 하버드 구성원들은 대학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아론 펄 교수는 "한 대학만을 생각하면 타협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고등교육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대학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과 함께 하버드 동문 500여 명도 공개 성명을 통해 대학에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수호를 촉구했고, 약 80명의 유대인 교수와 학생은 컬럼비아대의 학생 체포 사건을 규탄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hsb@bostonkorea.com



오즈투르크씨가 서머빌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민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유튜브 장면 캡처

연방 이민당국, 텡스대 박사과정 터키 유학생 구금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연방 이민단속국(ICE)이 25일 저녁 텡스대(Tufts University)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터키 국적의 유학생을 서머빌의 한 거리에서 구금했다.

ICE는 학생비자를 소유한 루메시아 오즈투르크를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은 이민단속국 SUV에 태웠다. 한 서머빌 거주 목격자는 보스톤글로브에 오즈투르크가 "난 학생이다"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 학생은 텡스대 아동학 및 인간발달(Child Study and Human Developmen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루메시아 오즈투르크로, 그녀는 앞서 컬럼비아대 사범대학(Teachers College at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즈투르크의 변호사인 마흐사 칸바바이는 그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원(habeas petition)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단속국(ICE)은 현재까지 이번 구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학생 활동가들에 대한 집

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텡스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에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충분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바 있다.

지역 사회 활동가들은 "오즈투르크가 친구들과 이프타르(Iftar) 저녁 식사에 참석하러 집을 나서는 길에 ICE 요원들에게 갑자기 체포됐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체포 이틀 전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이 해당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텡스대 수닐 쿠마르 총장은 25일 밤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학생 한 명이 캠퍼스 외부 아파트 건물 앞에서 체포된 사실을 접수했다"며, 오즈투르크의 비자 상태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대학 측은 현재 해당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쿠마르 총장은 또한 "대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체포 장소는 텡스대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ICE가 오즈투르크를 매사추세츠주 밖으로 이동시키려 면 받드시 사전 통보를 하도록 명

〈전체 기사 읽기〉

령했다. 탈와니 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추방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현재는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현상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ICE에 오는 금요일까지 해당 청원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탈와니 판사는 "정부가 오즈투르크를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이동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ICE는 이미 오즈투르크를 루이지애나로 이송한 것으로 주요 언론은 전했다.

한편, 오즈투르크는 텡스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끄는 주요 인물은 아니었으나, 최근 친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표적화하는 웹사이트인 카나리 미션(Canary Mission)에 사진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즈투르크는 지난해 3월, 대학신문인 '텡스 데일리'에 대학 측이 친팔레스타인 운동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공동 기고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사진 포기각서 강요 찾아

입국시 핸드폰과 소셜미디어까지 검색, 주의 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최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심사에서 합법체류자와 영주권자가 입국거부를 당해 비자취소, 영주권 박탈과 함께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소지자에게 영주권 사진포기 서류에 (I-407)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사진포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2월에만 두건이 발생했다. 이는 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타겟이 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했으면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지내면서 신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명목이다.

한 사례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

국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면 재입국이 불가하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입국자의 두려움을 조성하며 영주권 사진포기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 만약, 확실한 정보가 없이 두려움에 서류에 서명을 해버린다면 즉시 영주권이 만료되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져 즉시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입국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명 등의 행동 전에 변호사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장기 체류 허가(I-131)재입국허가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 이외에도 미국내의 우편물 수령 주소, 미국

〈전체 기사 읽기〉

은행 계좌, 유효한 운전면허증, 부동산 및 사업 운영서 등을 추가의 서류를 준비해 출국의 목적이 단기체류 여행인지의 여부와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 여부 등 미국의 거주 의사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작전이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타겟이 되어, 이로 인해 입국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소셜미디어까지 더 철저해진 입국검사를 시행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자료나 대화가 발견되면 문제삼아 추방해버리니 서류 이외에도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과거 작은 범죄관련의 기록이 하나라도 있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안 헤리티지 심포지엄, 한국의 현대 미술과 화가 이쾌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교양 강좌인 <코리안 헤리티지 심포지엄>의 시즌 5를 지난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3일에 진행될 세 번째 강의는 <한국의 현대 미술과 화가 이쾌대>가 주제이며, 아시아 및 아시안 아메리칸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인정받는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찰스 B. 왕 센터의 진진영(Jinyoung Anna Jin) 관장이 강의를 맡는다.

진진영 관장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4년 이후로 다양한 전시, 공연, 워크숍, 강연, 영화 및 커뮤니티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고 이끌며 그녀가 기획한 많은 전시들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PBS 등의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군대를 대표하는 리얼리즘 화가인 이쾌대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Art, War, and Exile in Modern Korea: Rethinking the Life and Work of Lee Qoede,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4).

이쾌대(1913~1965)는 일제 강

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거쳐 격동의 혼란기에 독보적인 예술혼을 꽃피운 20세기 한국 미술의 거장이지만, 월북으로 인해 그동안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화가이다. 서양과 동양의 기법을 혼합하여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특유의 한국적 리얼리즘을 탄생시켰으며, 1988년에 월북작가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가 되기까지 30년간 부인과 자식들이 그의 그림을 보관하고 지켜왔다.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의 스승이기도 하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진진영 관장이 직접 보스톤을 방문하여 렉스아트 (130 Waltham St, Lexington, MA)에서 진행하며, 줌(Zoom)으로도 동시에 스트리밍 될 예정이다. 대면 강의 전후로는 새로 출간된 저서의 사티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고 이끌면서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줌으로 강의를 접하고 싶은 분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register)”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강의의 시작 1시간 전까지 등록 가능).

〈코리안 헤리티지 심포지엄〉
일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후 7:30~8:30 (동부 시간)

상 세 정 보 :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댁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매사추세츠 ICE 단속에 불안에 떠는 이민자 가족들 ...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민 단속국 범죄자는 물론 합법 취업자, 망명자들도 무더기 구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사 = 지난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370명을 체포하자, 지역 이민자 가족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보스톤글로브가 24일 보도했다.

이번 ICE 단속은 뉴베드퍼드, 헬시, 풀리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합법 취업자와 망명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헬시에 거주하는 엘머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보유한 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다. 그는 지난 화요일 아침, 출근하던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신분증과 취업 허가서를 제시했지만, ICE는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두 명의 노동자와 함께 그를 연행했고, 현재 풀리버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엘머의 아내인 카롤리나(가명)는 "우리는 망명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고, 법원 출석도 빠지지 않았으며, 세금도 내고 있었다" 고 말하며, "아들 제이든(6)과 딸 아라셀리(5, 미국 시민권자)는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묻고 있다. 그 질문이

나를 무너뜨린다" 고 눈물을 흘렸다.

뉴베드퍼드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출근하던 노동자들이 체포됐고, 풀리버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시민권자가 신분증 세 가지를 제시해야 차량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한편, ICE는 체포자 중 205명이 중범죄 경력 또는 혐의를 받는 이들라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165명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먼 이민단속국장 대행이 직접 보스톤을 방문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이 작전 중 44kg의 메스암페타민, 5kg의 펜타닐, 1.2kg의 코카인, 그리고 총기 3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엑스(X)를 통해 "보스톤과 매사추세츠 지역이 더 안전해졌다. 모라 힐리 주지사와 미셸 우시장은 피난처 도시 정책을 지지하는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가 아니다" 라며, "주 경찰은 최근 마약 밀매 조직 관련 수십 명을 체포해 백악관에서 치안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고 반박했다. 보스톤 시

<전체 기사 읽기>

측도 "우리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이며 모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며, "체포된 이들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를 ICE가 공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보스톤대학교 법대 이민자 권리 및 인신매매 클리닉 부소장 세라 셔먼-스토크스 교수는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범죄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일반 이민자까지 포함한 전환점" 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단속은 ICE 외에도 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기국(ATF), 외교보안국, 연방경찰, 페더럴 마셜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각 지역 사무소당 하루 75명 이상 체포 목표를 설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햄프셔와 매사추세츠의 구치소들에서는 ICE 구금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풀리버스 카운티 구치소는 지난해 말보다 ICE 수감자가 약 30% 늘었고, 스트레퍼드 카운티 구치소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카롤리나는 "남편은 집을 폐인 트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나는 보육 시설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며, "미국 정부를 믿고 모든 절차를 따랐는데 이렇게 체포당할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은 현재 이민자 커뮤니티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수준" 이라며,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상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경 책임자, 보스톤 직접 방문해 단속 지휘 ... ICE수백 명 체포

▶▶1면에 이어서

으로 보스톤과 매사추세츠 지역의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며 "단속 국 요원들과 법 집행관들이 교도소가 아닌 거리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체포하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와 보스톤 미셸 우시장을 지목하며 "피난처 도시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지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호먼은 최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보스톤 방문을 공언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 약속한 바 처럼 보스톤을 방문해 5일간의 체포작전을 벌여 체포했다" 고 주장했다.

ICE측은 체포된 이민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어디서 체포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ICE의 성명서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 등 205명은 "중대범죄 경력 또는 혐의자" 라고만 밝혔으며, 나머지 165명의 체포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출신 국가를 보면 체포자들의 대부분은 중남미였으며 러시아계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

ICE 측은 이번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외에도 44kg의 메스암페타민, 5kg의 펜타닐, 1.2kg의 코카인, 총기 3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지역 ICE 국토 안보수사국 책임자인 마이클 크롤은 "이번 작전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범, 아동 성범죄자 등으로

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부 대응의 일환" 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검사 리아 B. 폴리도 "이민법을 위반한 뒤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하고 "불법으로 입국해 머무르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셸 우시장은 이번 달 연방 의회 증언에서 "보스톤의 공공 안전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이민자 보호 정책은 오히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반박했다. 우시장은 "총기 폭력은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해왔으며, 지난해는 보스톤 역사상 70년 만에 가장 적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해였다" 고 강조했다.

보스톤은 2014년 제정된 '트러스트 액트(Trust Act)'에 따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 체류자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시장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 며 "공포로 통치되는 곳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힐리 주지사 역시 최근 팟캐스트에서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원하고 자원을 가지고 와야 한다" 며 "법을 집행했던 사람(전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으로서 그에게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 고 질타했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 사업체 보험
- Workers Comp.
- 개인 자동차 보험
- 상업용 자동차 보험
- 집 보험
-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마동부/youth 전도사 : 최민영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조선에서 세일럼까지
유길준 후원의 밤
한국관

P | E | M
Peabody Essex Museum

Artist in Korea, Fan (taege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ffi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태극선 (부분), 18세기. 종이, 옷칠, 나무. 1900년경 Edward Sylvester Morse 기증. E4439. 쌍학홍배 (부분), 19세기. 비단에 자수. 1899년 Gustavus Goward 기증. E9785. 활옷 (부분), 18세기 후반. 비단에 자수, 종이, 면, 양모, 금속. 1927년 기증. E20190.F. 평안감사 환영도 (부분), 19세기. 비단에 채색. 1927년 W.C. Endicott와 George A. Peabody의 후원으로 박물관 구입. E20262.A.



문자로 의사 부르고 당일진료 가능한 디렉트 프라이머리케어 인기

환자당 월 \$80에서 \$145수수로, 빠른 의료서비스 강점 컨시어지 의료에 비해 저렴, 의료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달 80달러에서 최대 145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필요할 때는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를 집으로 부르며, 당일 진료가 가능한 디렉트 프라이머리케어(Direct Primary Care, 이하 DPC)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점차 확산 중인 DPC 모델은 보험사와 병원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의사와 직접 월 구독료를 내고 진료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DPC로 일하고 있는 15명의 1차 진료의 중의 하나인 드버라 팔머 박사는 2022년부터 이 방식의 진료를 도입해 200여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팔머 박사는 기존 보험사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며, 모든 예약과 결제는 직접 처리

한다. 팔머 박사는 “보험사와 같은 중개인 없이 환자 개개인에게 집중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팔머 박사는 최근 매사추세츠 홀랜드에 거주하는 71세의 케빈 타이씨의 집을 방문해 45분간 타이씨의 현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태를 점검한 뒤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줄이는 처방전을 내렸다. 타이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여러 약물을 복용 중에 있다.

이처럼 팔머 박사는 DPC로 일하며 환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이전까지는 브림필드에 위치한 병원에서 1차진료의(PCP)로 일하며 3천

500명의 등록 환자들을 15분안에 진료를 마쳐야 했다.

미국 전역에는 DPC가 약 3천명 정도 있다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직접 1차 진료(direct primary care) 의사이자 DPC 프런티어(DPC Frontier)라는 관련 웹사이트 설립자인 필 에스큐(Phil Eskew) 박사는 밝혔다.

DPC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보건정책에서도 유망한 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버트케네디 주니어 보건부장관은 상원 임명청문회에서 현행 의료보험의 대안으로 DPC를 제안했었다.

보수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행정부 청사진이었던 프로젝트 2025에 따르면 DPC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비용 고품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 제도의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했다. 보수인사들은 이 제도가 의료시장에 대한 자유시장관점의 접근이며 기존의 보험사란 중간매개체를 건너뛰는 제도라고 환영하고 있다.

디렉트프라이머리케어는 소위 매사추세츠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시어지 의료(concierge care)와도 다르다. 컨시어지 의료를 운영하는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상받고, 환자에게서 코페이(copay)도 받는다. 반면 직접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전적으로 환자들 월 진료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 옹호자들은 이를 “의료계의 넷플릭스(Netflix for medicine)” 라고 부르기도 한다.

컨시어지 의료는 또한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연간으로 청구하며, 보통 2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이고, 최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이르기기도 한다. 이에 비

〈전체 기사 읽기〉

해 팔머 박사는 어린이의 경우 월 80달러, 성인은 115~130달러, 노인은 145달러를 청구하며, 가장 비싼 요금을 내는 환자라도 연간 1,740달러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DPC 모델을 지지하는 의료진들은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언제든지 주치의의 만나 치료받을 수 있다” 며 비용 문제를 반박했다. 팔머 박사 역시 사무실 없이 집이나 화상 진료로 환자를 보는 이 모델이 과거 가정 의학의 본질적 가치를 되살리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DPC에 가입한 가족들은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전문의 진료나 각종 의료 검사, 수술 등을 의료보험 없이 수행한다면 의료비 폭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진료 수수료는 건강보험의 디덕터블로 포함되지 않으며, HAS 아카운트 자금을 사용할 수도 없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DPC가 의료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더욱 양극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버드 의대 러셀 필립스 박사는 “월 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많은 1차 진료의들을 흡수하는 까닭에 더 많은 1차 진료의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인구당 가장 의사수가 많은 주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전문의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매사추세츠는 1차진료의가 가장 적은 주 중의 하나로 신규 환자의 경우 평균 40일을 대기해야 한다. 이는 미국 다른 도시들 평균 15일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기간이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DPC에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다.

hsb@bostonkorea.com



성인뚜인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미국 중소기업청(SBA), 인력 43% 감축...2,700명 일자리 잃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 중 약 43%인 2,7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A의 켈리 뢰플러 청장은 성명을 통해 "핵심 임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축소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인력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1953년에 설립된 SBA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난 회복을 위한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 지원금을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감축 조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일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SBA는 이번 인력 감축이 자발적 퇴직, 코로나 시대 및 임시 계약직의 계약만료, 그리고 일부 직무 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보증 프로그램, 재난 지원 프로그램 및 현장 업무와 참전 용사 관련 업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감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담당해 왔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앞으로 SBA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BA는 이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 중 약 43%인 2,7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A의 켈리 뢰플러 청장은 성명을 통해 "핵심 임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축소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인력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1953년에 설립된 SBA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난 회복을 위한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 지원금을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감축 조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전체 기사 읽기〉로 인력을 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일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 뢰플러 청장은 설명했다.

SBA는 이번 인력 감축이 자발적 퇴직, 코로나 시대 및 임시 계약직의 계약만료, 그리고 일부 직무 폐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보증 프로그램, 재난 지원 프로그램 및 현장 업무와 참전 용사 관련 업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감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담당해 왔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앞으로 SBA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BA는 이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미국 보건복지부, 2만 명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

전체 인력의 25% 감축, 연 18억 달러 절약 계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27일 부처 인력을 약 25%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8만 2천여 명인 직원이 6만 2천 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8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감축 인력 중 절반은 조기 퇴직과 자발적 퇴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절반인 1만 명은 정리해고 대상이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기존 28개 부서는 15개로 축소되고 지역 사무소도 기존 10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케네디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암 및 만성질환 발생률도 함께 증가했고,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오히려 단축되었다"며 부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전체 기사 읽기〉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모든 부서를 미국 국민에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HS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감축 대상 직군은 주로 행정, 인사관리, 정보기술, 조달 및 재무 부문이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능이 주요 정리 대상이다. 특히 식품의약국(FDA)은 직원 3,500명이 감축될 예정이지만, 약물 및 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검사 관련 업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 센터(CMS)는 약 300명,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00명이 감축된다. CDC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원(NIH)은 1,200명의 인력 감축이 발표되었으나, 당초 예상된 규모보다는 적은 수치다.

hsb@bostonkorea.com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카드 결제 가능한 매사추세츠 MBTA 및 환승 시스템 정보 총정리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최근 매사추세츠 교통국(MBTA)의 지하철(T) 및 버스에서 찰리 카드(매사추세츠용 교통카드)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장비가 도입됐다. 스마트폰 결제로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해 충전소가 없는 역에서 찰리 카드의 잔액이 부족해 탑승을 거부 받던 고초를 겪던 상황이 해결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MBTA간 환승 시스템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일부 있다. 버스-지하철, 지하철-버스, 버스-버스 구간을 1시간내에 환승을 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지하철로 환승하는 상황은 다르다. 지하내 탑승구가 연결되어 있는 구간은 제외하고, 지상에 탑승구가 있어 다시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환승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을 새로 지불해야 한다.

이 환승 시스템은 스마트폰 결제방식에도 자동 호환되며 한국의 환승 시스템과는 다르게 내릴 때 굳이 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Charlie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하게 찰리 카드의 잔액 확인 및 충전도 가능해졌다.

현재 보스턴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이 모학생은 “기존에는 충전 가능한 장소에서

만 충전 가능했고, 버스나 T 내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 및 현금으로만 충전 가능했어서 급할 때 이용이 불편한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 페이 도입 이후로는 긴급 상황 시에도 결제가 가능해졌고,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많이 편리해 졌다” 라고 말했다.

운임비용 (Fares)

- 지하철(Subway/T): 편도 \$2.40
- 로컬 버스(Local Bus): 편도 \$1.70
- 1-Day Pass \$11 (24시간 무제한)
- 7-Day Pass \$22.50
- 월간 Pass \$90
- 월간 버스한정 Pass \$55

환승 운임 정보 (Transfer Fares)

- 버스 \$1.70 - 지하철 환승 \$0.70
- 지하철 \$2.40 - 버스 환승 \$0
- 버스 \$1.70 - 버스 환승 \$0

할인 요금 (Reduced Fare)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승객 대상 할인 제공
- 11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이용 가능
- 현역 군인, 경찰, 소방관, 정부 공무원은 무료 이용 가능

통근 열차/커뮤터레일 주말 및 공휴일 \$10

패스
주말 및 공휴일에 통근열차/커뮤터레일의



모든 노선과 구간에서 \$10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패스권이다. 탑승 횟수 제한 없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까운 보스턴 근교 여행에 이용하기 좋다. 락포트부터 플리머스, 프로비던스까지 운행하니 주말동안 가까운 곳에 여행해보자. 이 패스는 모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다. 공휴일은 MBTA에서 인정한 공휴일만 적용이 되니 패스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작년에는 노동절, 콜럼버스데이, 재향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 패스로 적용이 되었다.

또한, 주말과 월요일이 공휴일로 연결된 날은 총 3일동안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

휴일 패스권은 공휴일 7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통근열차 운임비용 (Commuter Rail Fares)

- 편도 \$2.40-\$13.25 (구간에 따라 다름)
- 월간 LinkPass: \$90
- 월간 통근열차 한달권: \$90 ~ \$426

보스턴에서 최근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직장인 윤모씨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하다가 차 빌리기도 좀 그렇고 했는데, 가격도 괜찮은 주말권으로 친구들과 보스턴 근교 편하게 놀러 가기 딱 좋을 거 같다” 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calBap-캘리포니아 건강밥상'과 함께 하는 건강요리 쿠킹클래스



3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칼밥"의 운영자와 함께 쉽고 맛있는 건강 레시피를 직접 배우는 특별한 시간!

- 17일(목) 요리: 콩비지찌게, 키노아샐러드, 채식마요네즈, 팟시루떡
- 18일(금) 요리: 마파두부, 양배추롤, 단호박샐러드, 캘리포니아찰떡



강사: 서숙형

유튜브 "칼밥" 운영자
건강요리 연구가, 한식조리사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8일(금) 오전 10:30~12:30

장소: 보스턴새생활센터(재활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턴한인교회)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신청방법: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25명 선착순"

신청마감: 2025년 4월 10일(목)

전화등록: 781-279-3270

온라인 등록: QR code 또는 링크를 통해 등록하세요.

참가비: 무료(FREE), 점심식사 제공

<https://forms.gle/9bVP5tSmJBZj39kS7>



*25명 선착순으로 등록되며, 운영자가 등록확인 메시지를 드립니다.

산불로 26명 사망...산림피해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중대본 "산림피해 3만6천ha 역대 최대"...중경상 22명 등 인명피해 56명. 영덕·영양 진화율 10%대..."사망·중상자에 고령층 많아, 선제적 주민 대피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26명이 숨지는 등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천700명이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이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동시 산불 사태가 일주일째를 지나고 있으나 산불 진화작업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진화율을 보면 산청·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산불이 시속 8~10km 정도의 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후위의 현실을 우리는 이번 산불을 통해 또다시 체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 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자체는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행히도 어제저녁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불 잘붙는 소나무 경북 가장 많아...역대급 산불

(안동·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소나무에 불붙으면 지속시간 활엽수보다 2.4배 길다.'

역대급 산림 피해를 내고 있는 경북 산불의 이면에는 나무를 심는 식수 정책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북 북부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또 숲에서 차지하는 소나무 비율도 경북이 가장 높아 수종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 등의 의견이 나온다. 27일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경북 소나무(

소나무·해송) 숲면적은 45만7천902ha로 강원(25만8천357ha), 경남(27만3천111ha)보다 훨씬 넓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산림 면적 중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나무 송진은 테라핀과 같은 정유물질을 20% 이상 포함해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특성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길다.

이 때문에 산불에는 소나무가 가

장 취약한 수종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그대로 붙어 있어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 태우고서 확산하는 수관화(樹冠火)가 발생하기도 쉽다.

수관화가 생기면 많은 불뚱이 만들어지고 불이 수십~수백m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이 생긴다.

지난 22일 산불이 시작된 의성을 비롯해 확산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도 소나무 숲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해 복구 사업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활엽수 중심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MA WEEKLY SALE MAR. 28th - APR. 3rd,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DISH SPONGE CAKE

Not your average dish sponge... It looks like a sponge, but trust me—it's 100% edible. 속고 속이는 만우절, 주변 사람들을 깜짝 속일 수세미 케이크 레시피를 H 마트에서 소개합니다!



Chinese Chive 중국 부추 \$1.99 LB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0.99 LB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0.99 LB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0.99 EA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1.29 LB	U.S.A. #1 Potato 감자 \$0.49 LB	Shine Muscat Grape 샤인 머스켓 포도 \$7.99 LB
Honey Mango 허니 망고 \$12.99 BOX	Shanghai Choy 청경채 \$0.99 LB	Israel Orri Mandarin 이스라엘 오리 만다린 \$1.99 LB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4.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 오이 16 OZ/PKG \$0.99	Seafood Mushroom 해산물 버섯 5.29 OZ/PKG \$0.99	Chinese Celery 중국 셀러리 \$1.29 LB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10.99 LB	Fresh Ox Tail 생 소 꼬리 \$13.99 L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6.99 CHUNK/LB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3.99 LB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3.99 LB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8.99 LB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3.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L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4.99 LB	Frozen Lologo Squid 한치 20-25 CM/LB \$5.99
Frozen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5.99	Frozen Cinnamon Flounder 별납치 150-200'S/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 Shin Vegan Cup Noodles 농심 비건 신라면 컵 \$7.99 2.64 OZ X 6 EA/PKG	NONGSHIM Neoguri Spicy Seafood Flavor Cup Noodle Soup 농심 너구리 컵 \$7.99 2.64 OZ X 6 EA/PKG
HAIIO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ORIGINAL/GREEN LAVER/VALUE PACK \$4.99 0.15 OZ X 16 EA/PKG	K TOWN Soup Stock for Cold Noodles 케이타운 냉면 육수 BEEF/DONGCHIMI 11.49 FL OZ X 6 EA/PKG \$3.99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PULMUONE Jjajang Ramen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4.99 1.28 LB (5 EA/PKG)	HAI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99 2.2 LB	PULMUONE Plantspired Plant Based Flat Dumplings 풀무원 식물성 납작만두 \$6.99 24.7 OZ	NANGMAN BROTHER Frozen Wheat Flour Cake with Sauce 낭만부라더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툇후추맛 BLACK PEPPER \$4.99 19.8 OZ
HAIIO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해오름 우동면 \$2.99 2.75 LB (5 SERVINGS)	PULMUONE Mozz, Cheddar & Fishcake Corn Dogs 풀무원 체다모짜 핫도그 \$6.99 14.1 OZ	SAJO Daerim Sang Knife-cut Noodles 사조대림 생칼국수 1.76 LB \$2.99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ORGANIC FARM Organic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 군밤 & 간밤 UNPEELED - 5.29 OZ X 4 EA PEELED - 3.52 OZ X 2 EA \$7.99 BOX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2.99 1.37 OZ X 12 EA/PKG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Retro Editon 해태 맛동산 40주년 한정판 10.58 OZ 2\$6 FOR	BANDAI Pokemon Model Kit 반다이 포켓몬 모델 키트 ALL VARIETIES \$9.99 \$7.99 EA	SURLASANG Earthen Bowl with Lid 수라상 머드 황토 독배기 \$16.99 \$12.99 NO.5 EA	HELLO HOME High Power Butane Gas Stove 헬로홈 고화력 가스렌지 \$27.99 \$19.99 NAVY EA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jhy@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okpark@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5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parkji@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근 617.877.0387 jin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36.3412 soonyee@bostonpremierrealty.com	 한희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영 617.915.1162 hy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규 617.543.0728 tjyee@bostonpremierrealty.com	 박희 404.641.9192 parkhee@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연 박 201.446.8995 hy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이재명 2심 무죄 ...'확장·유추해석 금지' 형사법 원칙 엄격적용

"골프 발언' 여러 의미 해석 가능...하나의 의미로만 보고 처벌 안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 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실제 한 발언을 넘어 쉽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법해석 방법론 측면에서는 확장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는 취지다. 확장해석 역시 법문상 용어를 보통 사용되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선 용인되지 않는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에서 이 대표 발언의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故) 김문기씨 관련 발언을 해석해 의미를 부여한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2심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검찰 해석을 두고 유추·확장해석으로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 "골프 치지 않았다'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4차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2심에서 특히 쟁점이 됐던 건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이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은 '조작한 것' 발언의 의미는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

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사진 자체는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표 발언 역시 주장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2심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등 발언도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기소된 일부 발언에 대해 "원문을 조금씩 추출해 한데 묶어 분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살펴 판단했는데, 검찰이 발언을 임의 발췌했다며 비판해온 이 대표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성을 끊어 내려' 의도가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결정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려워"

2심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는 이른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애초 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전체적 '의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봤으나, 2심은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받았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제하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한 발언 역시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표 사실 전제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 차이가 나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가 국토부 공문상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부분도 '의견 표명'이라고 했다.

한편 백현동 용도부지와 관련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해 성남시 이익 확보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본 2심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으로 다른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인정 된 바 없다"고도 밝혔다.

already@yna.co.kr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 ...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료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찜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장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son@yna.c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Ktown

MAR. 27TH - APR. 3RD, 2025



케이타운 볶음밥
(김치/새우/낙지/해물짬뽕국밥)
K TOWN Fried Rice
 KIMCHI/SHRIMP/OCTOPUS/SPICY SEAFOOD
 14.81-17.63 OZ ~~Reg. \$6.99/EA~~
2\$ 8.99
 FOR



베지밀 아몬드와 호두 두유
DR.CHUNG'S FOOD
Vegemil Almond & Walnut Soymilk

\$13.99 ~~← Reg. \$19.99~~
 6.4 FL OZ
 X 24 EA/BOX



키친타올
 무료증정

FREE

PAPER TOWEL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연상호 "믿고싶은 것만 믿는 사회... '계시록', 시대가 낳은 영화"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제가 만든 작품이지만 영화 '계시록'이 지금의 시대가 잉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으로 돌아온 연상호 감독이 24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작의 기획 의도와 자신의 연출관을 들려줬다.

'계시록'은 소녀의 실종을 둘러싸고 목사 성민찬(류준열 분)과 형사 이연희(신현빈), 전과자 권양래(신민재)가 얽히고설키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고 믿게 되는 목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연 감독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 보던 과거를 비교 예시로 들었다. 예전에는 원하는 영화가 없으면 가게를 둘러보며 다른 영화도 봤지만, 지금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연 감독은 "개별적인 취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렸다. 넷플릭스도 '당신의 취향'을 추천

하지 않느냐"며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 자기가 원하는 앵글대로 보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등 한국 사회의 모습도 이런 현상의 일면이라는 게 연 감독의 생각이다.

연 감독은 '계시록'을 넷플릭스에서 선보이게 된 계기를 묻자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대중적인 작품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마침 극장 영화에 대한 투자 상황이 너무 심하게 얼어붙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넷플릭스에서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연 감독은 목사 역을 연기한 주연 배우 류준열에 대해 "걸음걸이 등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배우"라며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칭찬했다

"(류준열이 하는) 질문 내용이 좋았고 쓸데없는 질문들이 없었어요. 질문이 구체적이고 자신이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해줘서 버릴 질문이 없었죠"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형사 이연희 역은 신현빈이 연기했다.

연 감독은 "이연희라는 캐릭터는 죄책감에 짓눌려 언제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라는 게 제일 중요했다"며 "(신현빈을)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밝았다. 그런데 얼굴 등에서는 '박복한 미'가 있었다"고 그를 기용한 배경을 들려줬다.

연 감독은 '계시록'과 영화 '부산행',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시리즈 '지옥', '기생수: 더 그레이'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들어왔다. 쯤비물, 괴수물, 코미디, 학원물 등 장르도 다양하다.

연 감독은 "영화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다양해야 한다"며 "제가 하는 틀에서 탈출하고 싶지, '연니버스'라는 성을 견고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연니버스'는 연상호 감독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그의 작품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쯤비물을 그린 영화 '부산행'과 '반도', 애니메이션 '서울역' 등이 대표적이다.

연 감독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큰 틀의 맥락을 만들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욕망을 비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줘야 영화 창작자로서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꿈꿀 수 있는 의지나 욕구 같은 게 생긴다"며 "올해 개봉하는 영화는 이런 걸 하겠어, '내년에는 어떤 걸 하겠어'라고 큰 맥락을 잡다 보면 그 뒤로는 일을 벌여놔오니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했다.

조만간 선보일 영화 '얼굴'은 유

튜버와 경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등이 출연하는 '얼굴'은 저예산 독립영화로 2억원대 제작비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연 감독은 '얼굴' 외에도 다양한 작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가스인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각본을 맡았고 연출자로서 신작 '군체'를 촬영하고 있다. '군체'는 전지현이 약 10년 만에 복귀하는 영화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연 감독은 전지현과 호흡을 맞추는 데 대해 "(전지현은)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 명확하다. 업계 톱스타로서 작품을 보는 구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며 "같이 작업을 해주는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니 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MFA 에서

만나요 ▶▶ 봄 이 이벤트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영화 시리즈

위키드 쿼어: 보스톤 LGBTQ+ 영화제

▶ 4월 10일 - 4월 12일



어린이와 가족 프로그램

4월 봄방학 주간

▶ 4월 23일 - 4월 26일

특별 이벤트

아트인 블룸

▶ 5월 2일부터 5월 4일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Still from The Wedding Banquet (2025), by Andrew Ahn.

▶ 방문은 mfa.org에서 시작하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4) 하락장세

작년 미국 주식시장 놀랍게 23% 상승했다. 2023년에는 24%였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 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Recession)가 온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투자자 마음이 갈팡질팡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예측에 매우 민감하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전 주식 시장 향방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자의 간절한 마음의 보답(?)으로 금융회사는 주식시장 예측을 끊임없이 발표했다.

미국 권위 있는 경제인(Economists) 잡지는 2022 혹은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강력히 언급(Forecast for US recession within year hits 100% in blow to Biden)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인 제피모건(JP-Morgan)의 회장(Jamie Dimon)은 '허리케인이 미국 경제를 덮친다'고 2022년 중

순에 경고했다. 대형 헤지펀드사인 브리지워터(Bridgewater)의 대표(Ray Dalio)도 경제적 고통의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2023년 경고했다.

금융회사 더블라인(Doubleline Capital)대표는 건틀라크는 2024년 주식시장이 3,200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5,881로 마감되었다.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월스트리트지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아마존 회장과 테슬라 회장은 2022년 10월에 경기 침체가 와서 2024년 봄까지 지속(Elon Musk says a global recession could last until the spring of 2024)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저명한 주식 전문가, 경제학자, 대기업의 회장, 펀드 매니저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했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1950년부터 경기 침체를 11번이나 경험했다. 그래서 주식시장 예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며 우리 모두 투자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간절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안타깝게 인생이 그러하듯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고기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락장세(20% 이상)인 베어마켓은 뼈아픈 경험이다. 폭락하는 이유는 항상 다르지만, 투자자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똑같다. 폭락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에 주식시장 폭락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폭락을 전부 이겨내고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당연히 자산이 줄어든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시장이 폭락해도 주식배당금이 꾸준히 나와서 싼 가격으로 주식을 더 구매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회복하면 더 많은 주식수로 자산이 더 늘어난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5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점을 1,200이나 기록했다. 매년 평균 17%씩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이것은 평균 20일마다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에만 57이라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수익률도 지난 5년 연평균 15.38%, 10년은 13.32%, 20년은 10.47%, 그리고 30년은 10.98%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도 맞추지 못하는 주식시장 예측을 멀리하고 꾸준히 장기투자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수익률 10%란 복리도 \$10만 달러 투자가 7.2년 후 \$20만 달러, 7.2년 후 \$40만 달러, 그리고 약 23년 후에는 \$80만 달러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인식해야 한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의 현 상황

1. 사태의 발단 및 진행

추성희 회장 취임 이래 정관과 전례를 무시한 추 회장의 여러 결정들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서 지역협의회장들의 꾸준한 지적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나, 무시되어왔고, 주요 사업들의 실패 및 부실한 행정 (예: NCATE 시험)들에 대한 책임이 부회장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직접적인 사태의 발단은 샌프란시스코의 학술대회 사후 미팅에서 부회장들이 회장의 학술대회 운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회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사임하겠다고 통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박종권 이사장 역시 선출된 이래로 정관과 전례를 무시한 수차례의 자의적인 결정 또는 무결정들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이사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14개 지역협의회장들이 협의회 운영의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두차례에 걸쳐서 제시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2. 징계 절차

14개 지역협의회장단이 추성희, 박종권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회원자격위원회에 요청하였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징계안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추성희 (징계), 박종권 (징계), 윤혜성 (징계) 황현주, () - 두 부회장은 사임함으로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됨.

회자위에서 추천한 징계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서 징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박종권 이사장이 이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후 이사회 회의를 주도하였습니다.

투표 전에 추성희 총회장, 박종권 이사장에게 징계당하지 말고, 자진 사임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들이 끝까지 투표를 하자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발언하였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박종권 이사장은 사임 인사를 하고 퇴장하였으며, 추성희 회장은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날 (9?) 나스 전회원교에 사임인사와 함께 새 회장을 잘 선출하라는 편지를 추석인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3. 신임 이사장 및 총회장 선출

이에 따라 나스 이사회는 새 이사장과 새 회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협의회 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지명위원회의 공고, 지명위원회의 심사, 정견발표,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인준)에 따라 신임 이사장 (이기훈)과 총회장 (손민호)이 선출되었습니다.

4. 추성희, 박종권의 자신들의 결정 번복 및 법정 소송

추성희, 박종권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인정하고, 참여한 이사회 의 결정,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발언과 편지에도 불구하고, 은행 계좌와 협의회 웹사이트는 물론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갑자기 (며칠) 후에 입장을 바꿔서 협의회 의 이사회 의 결정이 틀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징계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시되고, 논의되고,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들을 반복하며 회원교와 지역협의회 등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내어 협의회에 극도의 혼란을 불러오는 것과 함께, 사실을 자제히 알지 못하는 회원교 교사 와 교장 선생님들에게 의혹의 불씨를 심어 불신을 불러오는 등 나스 협의회 를 분열로 몰아갔습니다.

협의회의 지역협의회장들을 포함한 이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사회 의 결정을 하루 아침에 번복하고, 적법한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오히려 협의회 를 분열로 몰아가는 행동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사회 의 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오고 간 이메일들을 통해서 위에 밝힌 내용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인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이사회 의 결정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모든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법정으로 가져갈 생각은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법정 에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의 공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Date) Peterson law firm 을 통해서 NAKS vs. Son & Lee 의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도 선택의 여지 없이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측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이 약 20만불이 조금 안됩니다. 아마도 추성희, 박종권 두분의 변호사비용이 이보다 더 적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나스의 4십 여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피, 땀흘려 아끼고 모아가며 학교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온 회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일단 선금은 각 협의회에서 조금씩 모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만 상당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5. 법정소송의 결과

추성희 박종권 두 분이 제시한 법정소송은 재판으로 가기 전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Hearing을 열기 전에 양쪽을 모아놓고 타협을 하라고 하였으나, 추, 박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놀랍게도 판사가 추, 박 측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일단 그 결과를 당분간은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법정 소송 및 결과,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입장

이번 사태의 본질은 추성희, 박종권 두 사람이 협의회 이사회 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이사회 의 결정을 무슨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사회 를 포함한 협의회 를 법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신들이 협의회 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의 일을 개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협의회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한인 사회의 분규에 경험이 많은 피터슨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두 사람이 NAKS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NAKS 인양 NAKS가 지금까지의 분쟁, 자신들의 제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신임 이사장과, 신임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판사가 왜 이들의 편을 들어주었는지 우리 측도 반성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NAKS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서 모두 정신차리고 이 일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으로 갈 경우 그비용은 지금까지의 비용에 비교가 안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인의 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써가며, NAKS를 둘로 쪼개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현재 14개의 지역협의회 중에서 추, 박이 소속한 지역협의회, 그들과의 친분 관계, 등등을 통해서 중립으로 남아 있거나, 추, 박측의 편을 들고 있는 협의회 를 제외한 9개의 협의회가 처음부터 이사회와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협의회 의 이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정통의 이사회입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두 개인의 부당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건지요?

추성희, 박종권 두 사람이 이 개인적인 일을 두 개인의 일이 아닌 자신들이 NAKS인양이 소송을 건 이유는 아마도 NAKS의 일인 것처럼 만들어서 변호사비용을 NAKS의 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써 마이클 양 기금에서 19만불이 인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WELLS FARGO 구좌에서 변호사에게 인출된 4만여불에 더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양 기금은 NAKS 전체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인출을 위해서는 일정의 이사회 의 결정과 이사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두 개인의 일로 40여년을 지켜온 NAKS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일을 뒤로하고, 다시 14개의 지역협의회가 다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차 세대의 아이들과 모국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마음으로 모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 빼고 돌아온 '감독' 하정우...말장난의 향연 영화 '로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특전사 폭발물 처리반('백두산')부터 레바논 무장단체에 쫓기는 외교관('비공식작전'), 납치된 비행기의 파일럿('하이재킹'), 동생의 복수를 위해 맨몸으로 싸우는 전직 조직원('브로큰')까지. 배우 하정우의 최근 필모그래피를 보면 '고난 전문 배우'라는 그의 별칭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스크린 속 하정우는 때리고 맞고 쫓고 쫓기는 모습으로 익숙하다. 이 때문에 모든 역할과 연기가 비슷해 보여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비스티 보이즈'·'멋진 하루'(2008)나 '러브픽션'(2012) 등을 통해 짜질하고 애잔한 캐릭터 역시 찰떡처럼 소화한 배우다. 유머러스한 대사를 태연하게 읊고 캔스레 멋쩍어하는 장면들이 소소한 웃음을 유발했다. 그가 감독 겸 주연을 겸한 '로비'에서는 오랜만에 이런 힘 빼 연기를 만날 수 있다. 하정우가 '허삼관'(2015)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연

출작으로, 국책 사업을 따내려 접대 골프를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 창육을 연기했다. 연구밖에 모르고 살던 창육은 이른바 '로비력'이 달려 기술력이 떨어지는 옛 친구 광우(박병은 분)의 회사에 밀릴 위기에 직면하자 국토교통부 실세 최 실장(김의성)에게 접근한다. 평생 골프라곤 쳐본 적 없는 창육이지만, 부랴부랴 골프와 아부를 익혀 라운딩 일정을 잡는다. 최 실장이 열렬히 사모하는 여성 프로골퍼 진 프로(강해림)와 로비에 일가견 있는 박기자(이동휘)도 섭외해 동행하게 한다. 골프장 반대편에선 광우가 국토부 일인자이자 최 실장의 아내 조 장관(강말금)에게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가 젊고 잘생긴 인기 배우 마태수(최시원)까지 동원해 조 장관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골프장 대표(박해수)는 아내 다미(차주영)를 앞세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엿듣는다. 골프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블

랙코미디는 황당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일 것 같아 쓴웃음을 자아낸다. 캐릭터 하나하나 리얼리티가 살아 있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뒷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자괴감을 느껴본 관객이라면 영화를 보는 내내 잊고 있던 흑역사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소재와 스토리는 가볍지 않지만, 말장난 가득한 대사의 향연 덕분에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지는 않는다. 하정우를 중심으로 한 배우진이 '말맛'을 잔뜩 살려 뛰어난 앙상블을 이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모든 출연자가 모여 대본 리딩만 수십번을 거쳤다고 한다. 주·조연뿐만 아니라 성동일, 현봉식, 박경혜, 엄하늘 등 적은 분량의 배우들도 제 몫을 해낸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나 코미디에 그다지 특이 되지 않는 캐릭터가 눈에 띄는 반면 개성이 강한 캐릭터는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사가 또렷하게 들리



지 않아 웃음의 타율이 떨어지고 전개 역시 다소 산만하게 느껴진다. 다음달 2일 개봉.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 rambo@yna.co.kr

3월 30일 - 4월 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부지런히 노력해야</p> <p>● 운수: 주위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밀고나가야 합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복이 들어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 있으니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p>	<p>소띠 의욕이 샘솟고</p> <p>● 운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드디어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대목에서 뜻이 통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1, 2일 길일. 30, 5일 주의.</p>	<p>범띠 활기를 찾게 되는</p> <p>● 운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한다면 이익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회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0, 4일 길일. 31, 1일 주의.</p>
<p>토끼띠 행운이 함께 하는</p> <p>● 운수: 죽은 가지에서 꽃이 피듯이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오는 운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1, 3일 길일. 1, 5일 주의.</p>	<p>용띠 서두르지 않도록</p> <p>● 운수: 지금은 일을 벌이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주입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의심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 3일 길일. 30, 2일 주의.</p>	<p>뱀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p> <p>●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는 마음속엔 안 그런데 차마 말 못해서 그런척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p>
<p>말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p> <p>● 운수: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은 모르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p>	<p>양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p> <p>●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되니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31, 4일 길일. 1, 2일 주의.</p>	<p>원숭이띠 동업은 하지 말아야</p> <p>● 운수: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며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주입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고 명예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 애정: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p>
<p>닭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p> <p>●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은 크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만큼 상대도 의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p>	<p>개띠 기분 전환이 필요한</p> <p>● 운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해결점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짙을 발견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p>	<p>돼지띠 좋은 조언도 받는</p> <p>● 운수: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씩씩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들, 간직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4일 길일. 3, 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tN 드라마 '이혼보험'... "이혼도, 결혼도 행복해지기 위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결혼도, 이혼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혼보험'은 이혼이 아니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예요." (이동욱)

t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의 주연 배우 이동욱은 24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통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던 '이혼'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이렇게 말했다.

'이혼보험'은 손해보험회사 혁신상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노기준(이동욱)과 보험계약 심사 담당자 강한들(이주빈), 리스크 서베이어 안전만(이광수), 금융 수학자 전나래(이다희)가 만드는 보험 상품을 소재로 삼았다.

새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혼. 교통사고 못지않게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타격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는 이야기다.

이혼 이야기를 로맨틱코미디라는 장르 안에 버무려내 웃음을 놓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동욱은 "7~8년 만에 다시 하게 된 로맨틱코미디 장르"라며 "오래간만에 '티키타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 대사를 맞춰가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돌아섰다.

이광수도 "동욱이 형과 시리즈로 만든 애드립이 있다"며 "드라마 안의 작은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이혼을 겪은 이들로 등장한다.

노기준은 무려 3번 결혼하고 3번 다이혼한 '경력자'이며, 강한들은 가장 최근에 이혼을 경험한 '이혼 초보자'다. 전나래는 노기준의 전(前)전처녀로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

이다희는 "모든 배우와 불편하거나



어색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래서 자연스러운 케미(호흡)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킬링 로맨스' 등을 만든 이원석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이기도 하다.

이원석 감독은 "드라마라는 것이 영화 1편을 만들 기간에 6편을 만드는 작업이라 자신이 없었고, 그간 제안도 다

고사했었다"며 "이태운 작가가 대본을 쥐서 2화 정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하겠'다고 했다. 드라마 안에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는 점이 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집하면서 설렌 것은 처음"이라며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1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heeva@yna.co.kr

아일릿 "진하게 느낀 1년... 또래가 공감할 가사로 사랑받았죠"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비행기를 탄 1년이었고, 무엇보다 글릿(아일릿 팬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이로하)

데뷔곡 '마그네틱'(Magnetic)의 인기로 바쁜 한 해를 보낸 걸그룹 아일릿이 지난 활동을 돌아봤다.

아일릿은 데뷔 일인 25일 소속사 빌리프랩을 통해 "너무 진하게 느낀 1년이었다"며 "멤버들과 많은 것을 경험하며 더 끈끈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일릿은 데뷔 1년 차 활동으로 국내외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일곱 차례

수상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마그네틱'은 K팝 데뷔곡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도 진입했다.

멤버들은 팀의 인기 비결로 또래들의 호응을 끌어낸 노래와 춤을 꼽았다. 아일릿은 2008년생 막내 이로하부터 2004년생 맏언니 윤아까지 멤버 전원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이다.

아일릿은 1년간 거둔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퍼포먼스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다. 관객들이 들어찬 공연장에서 자신들이 발표한 곡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cjs@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으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파키스탄(Pakistan)에 다녀와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2주를 선배 목사님과 동행하여 '파키스탄(Pakistan)'에 다녀왔다. 뉴욕 JFK 국제공항을 출발 12시간을 가서야 Abu Dhabi 국제공항에서 2시간 정도 경유해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Karachi) Quaid-E-Azam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서 미리 예약해 둔 카라치 호텔에 이틀 묵게 되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처음 방문해보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의 공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새로웠다. 사실은 설렘도 있었지만 조금은 두려움마저 느끼기도 했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은 설렘과 떨림의 그 중간쯤이지 않던가.

이번 선교여행은 <뉴욕선교센터(NYMC)>의 첫 방문지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곳의 상황과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돕는 사역이라면 제대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역이길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재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 온전

히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내가 가야할 길을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맞는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며 우르두어를 쓰고 영어를 간간히 쓰고 있다. 인구는 약 225,199,168명(2021년)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무슬림의 수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2024년 군사력 순위는 9위로 여겨진다. 면적은 약 796,095km² 로 세계에서 33번째로 거대한 크기이다. 아라비아 해와 오만 만을 따라 1,046Km의 해안선을 남쪽에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옛 페르시아제국의 중심이었던 이란, 북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주하고 있으며, 오만과의 해상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다"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많음을 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임을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다. 순간 순간의 아찔한 상황도 맞부

닥칠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이니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특별히 열방을 찾는 이들은 더욱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선교여행에 힘이 되어 준 이는 다름 아닌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가 함께 해준 이유였다. 열방의 꿈을 가지고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온 선배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용기가 생겼던 것이다. 선배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교여행은 세상을 더 넓게 깊이 바라보고 싶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 보지 않고서 어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일상 생활에 단 며칠이라도 머물러 보고 싶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어 보고 느끼고 싶었다. 잠깐의 맛보기였지만, 피약별에 바삭 말라버린 빵, 먼지 폴폴날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의 감동, 환경의 높낮이를 어느 잣대로 댈 것이며 누가 저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권리가 또 있겠는가. 행복의 반대말이 꼭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인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인 곳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배 목사님과 나는 챙겨갔던 '에어로폰 연주'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함께 음악공부 시간을 마련한 것이었다. 영어도 곧잘 알아 들었다. 그 이유는 한국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그곳에도 여전히 K문화가 인기가 있었다. K-드라마, K-푸드, K-뮤직 중, 고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운다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교역할임을 깨달으며 감사했다. 할렐루야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자주국방 (II)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령과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있었다. 결과는 쌍방간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예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다. 더 달라는 쪽과 더 줄수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다.

회담기사를 읽으며 떠오른 잡생각이다. 자주국방과 자주외교, 오래전 한국에서 듣던 낱말이다. 스스로 지키고 넓힐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바, 힘이 먼저이고 능력이 우선한다는 말일게다. 자강자강이요 자력자력이라 해야겠다. 갖고있는 카드가 시원치 않으면 여지없이 당하는게 자연법칙인 바, 윤리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다른 뾰족한 비법은 없지 않은 거다.

앗 뜨거워라. 요즘 독일이 깨

닫고 있다고 한다. 옆나라 우크라이나전쟁을 보고있는 독일을 말한다. 한국신문 기사 제목이다. "독일이 깨어났다...트럼프가 촉발한 '자주국방' 각성". (동아일보, 3-8-2025) 한동안 독일은 국방에 소홀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옆나라 전쟁을 수수방관하기엔 사태가 심상치않다 생각한 모양인게다.

유럽의 여러나라에겐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자강자강할수있는 기회말이다. 그러나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기회가 왔을적에 잡아야 한다. 호기회를 놓친다면 지나간 버스 아쉬워한들 무슨 소용이라. 다음 버스는 있을리 없을 테고 이웃나라들도 제 코가 석자인게다.

기회를 놓친 함석헌선생의 시

조이다. 후회하고 뉘우치는데 간절히 애걸하는 뉘새가 짙다.

이렇게 오시는 임 내 되레 버렸으니
임 다시 찾으신들 내 무슨 낫을 들리
임이어 종으로 보고 문간에다 두소서
(함석헌, 뉘우침 중에서)

그나저나 전쟁이 끝난다 해도 양편 모두 피해가 막심할게다. 상처뿐인 영광인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 25:4)

첨언) 자주국방이란 제목은 몇년전 줄문에서 써먹은 적이 있다. 이번은 2편이다.

서양 속담이다. 사자는 양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읽으며 뜻이 간명하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였다. 동화같은 상상이다. 사자가 양에게 묻는다. '네가 살기를 원하는가? 살고자 하면, 고픈 내배를 채울 다른 것을 다오.'

사자는 힘들여 잡은 양을 순순히 놓아 줄리는 없다. 동정심에 하소연한다 한들, 배고픈 사자를 달랠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사자와 담판하고 타협하며 달하는 비법이 있을리 만무하다. 몇주 전이다. 우크라이나 대통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5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May 2, 2025 (Friday) 6 PM

Michael's Function Hall

12 Alpha St, Haverhill, MA 0183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에도 종류가 있다 ...내 증상은 어디 해당될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주로 귀와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귀에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기능저하증 등이 있으며 방치하면 청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중추성 어지럼증은 편두통이나 뇌혈관장애 등 뇌에서 기인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석

증이석증은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이동해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잠자리에서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릴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증상과 구토가 발생한다. 이석증은 이석정복술로 치료하며 한두 번의 시술로도 증상이 호전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하고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한다. 또 머리를 갑자기 돌리지 말고 천천히 누워야 한다. ■메니에르병에 니에르병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저하, 귀 먹먹함, 이명 등이 나타난다. 어지럼증은 20분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치료를 소홀히 하면 청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며 “고염식, 카페인, 술, 담배를 피하고 발병 시 즉시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정신경기능저하증전정신경기능저하증은 전정신경의 기능저하로 발생하며 염증,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특히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자주 나타나며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위험이 더 높다. 전정신경기능저하증은 자세변화와 관계없이 어지럼증이 수일간 지속된다. 재활치료, 꾸준히 걷기가 증상개선에 효과적이며 빨리 치료하면 몇 주 안에 호전될 수 있다. ■편두통편두통은 청력이상 없이 나타나는 재발성 어지럼증의 주원인이며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병력, 증상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문석균 교수는 “두통, 사지위약, 복시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뇌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카페인, 초콜릿, 견과류, 와인 등의 섭취를 줄이고

예방약을 꾸준히 복용해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뇌로 인한 어지럼증뇌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관건이다. 만일 ▲심한 두통 ▲의식저하 ▲언어장애 ▲삼킴 곤란 ▲물체가 겹쳐 보임 ▲한쪽 팔이 나지 않음 ▲눈꺼풀 처짐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어지럼증에도 종류가 있다...내 증상은 어디 해당될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석증이 생기는 과정

전정기관에 있던 이석(耳石)이 반고리관으로 굴러 들어감

이석이 반고리관의 평형감각 세포를 자극

몸이 회전하고 있다고 느껴 어지럼증·구토 생김.



이석증 재발막는 전정 재활 운동법

- 1 폭신한 침대에 앉는다.
- 2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린 채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쓰러지듯 누워 30초 유지한다.
- 3 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워 바르게 앉는다.
- 4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돌린 채 오른쪽으로 빠르게 누워 30초간 유지한다.

※ 위 운동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10회씩 시행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재회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acl-ne.org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NLY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in



f



Instagram icon

2025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CHOLARSHIP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2,000 SCHOLARSHIPS

ACCESS TO:

-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Mentorship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APPLICATIONS AVAILABLE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30, 2025

APPLY NOW



INTERVIEWS CONDUCTED ON A ROLLING BASIS
Email: application@kacl-ne.org




  Korean Peninsula Peaceful Unification Forum 2025

The ROK-US Alliance: Shaping the Future Together in the Trump Era

2025. 4. 9.(Wed.) 5:00 PM
Folkman Auditorium (Boston)

Session 1	Session 2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ROK-US Alliance	ROK-US Exchange Strategies Engaging the Next Generation

Hosted by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rganized by |  PUAC Boston Chapter

Interested |  Please contact us at moon.econ@gmail.com



6.25 참전용사 초청 기념식 개최

6.25 참전용사 초청 기념식 개최로 감사와 조의를 표하며 통일공공외교 수행,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및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11:30 AM - 3:00 PM
장소 : 보스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 Woburn 시청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내용 : 6.25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 및 헌화,
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1:30-12:00(30분)	기념비 헌화 및 참배 준비
12:00-12:30(30분)	축사, 감사 인사
12:30-14:30(90분)	보은 행사(기념식) 및 간담(오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15% 할인, 3월 31일 마감

Letterly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